

사회

광주 운남동 일가족 3명 사망 추돌사고

단순사고나 고의나 '미스터리'

- ① 부부싸움 뒤 새벽 3시 가족 태우고 운전
- ② 숨진 아들 오른팔 훼손 불구 혈흔 없어
- ③ 저속구간서 승용차 반파 대형사고 발생

‘광주 운남동 일가족 3명 사망 교통사고’(광주일보 3월24일 6면)를 조사 중인 광주경찰이 24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인 운전자 김모(42·광산구 월곡동)씨에 대한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여러 의문점을 규명하는 한편, 고의사고 가능성 등이 확인되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국과수에 김씨의 아내(38)와 아들(13), 딸(12) 등 3명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의 목뼈·갈비뼈·다리뼈 등에서 뚜렷한 생활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시신에서 생활반응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일단 살아있는 상태

에서 교통사고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물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마트에서 화물 배달을 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귀가 시간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씨와 가족 명의로 된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부검 종합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

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고의 사고인지, 아니면 여부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보기에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의문점은 김씨가 사고 당일 부부싸움을 한 뒤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에 아내와 두 자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씨는 구두조사에서 “아내가 서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다. 아이들도 아내 가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함께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의문은 숨진 아들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팔이 잘렸는데도, 상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팔이 절단됐다면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차량인 김씨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조수석이 반파될 만큼 대형

사고가 일어난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 도로인 데다 갖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도 많아 과속이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이다.

◇의혹 해소 열쇠는=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인 김씨의 진술을 사건을 해결해줄 중요한 단서로 꼽고 있다. 김씨는 내부 장기(臟器)를 크게 다쳐 광주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현재 김씨는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로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김씨를 상대로 간단한 구두 조사만 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반응=살아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몸의 반응. 피하 출혈·염증성(炎症性)·발적(發赤)·종창(腫脹)·화농(化膿) 따위는 시신에는 생기기 않으므로, 상처가 살아 있을 때의 것이 아닌지를 판명하는 데 이용된다.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렴”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동림동 극락교회 인근에서 송광운 청장 등 북구청 직원들이 유치원생들과 함께 철쭉을 심고 있다. 송 청장 등은 이날 철쭉, 왕벚나무 등 588주를 심고 나무에 이름표를 달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바’ 선정 투명해진다

권익위, 공공사업 발주 때 시방서에 명시

앞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시방서에 ‘함바(건설현장 식당)’ 내용이 포함되는 등 함바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사 본사에서 함바를 실제로 이용하는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식당 운영권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선정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이권개입, 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사업 발주 시 시방서에 함바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에도 함바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대형 사업장 인·허가시 함바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관리 등 구조적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사업 발주 시 시방서에 함바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에도 함바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대형 사업장 인·허가시 함바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신안출신 위안부 피해자

신쌍심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신쌍심(84) 할머니가 지난 21일 신안군 안좌면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4일 전했다.

신 할머니는 1944년 목포시장에서 강제로 끌려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해군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해방과 함께 귀국해 고향에 정착한 신 할머니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연합뉴스

‘도깨비 불’ 잡힐까

광주 북구 동네마트서 8개월 새 3차례 화재

수억 피해 문 닫아... 경찰 발화 가능성 수사

이번에는 ‘도깨비 불’의 방화범(?)을 잡을 수 있을까. 광주의 한 동네 마트에서 8개월 새 세 번이나 불이 났다. 원인이 오리무중이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가게 장사도 잠시 접은 상태다. 재산피해액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과 상가 주인들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50분께 북구 두암동 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내부면적 198.3㎡(60평) 중 49.5㎡(15평)를 태우고 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중순과 7월 말께에도 이 마트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발화지점은 에어컨 실외기(2번)·주류 냉각고 외벽(1번) 등이다. 화재 발생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

다. 주인 강모(33)씨는 “한 가게에서 마트 3차례나 불이 날 수 있느냐. 자주 불이 나면서 장사도 거의 안 된다”며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고 서울까지 올라갔지만, 원인 미

상으로 나왔다. 원인을 알아야 조치를 취할 것인데,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3차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액만도 1억원이 넘고 이미 지출된 보험금도 1억원이 넘는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보험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 가게에서만 세 차례 불이 나면서 인근 주민과 상가 주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 윤모(42)씨는 “누군가 고의로 불을 댔다면 우리 집도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니냐? 너무 불안하다”라며 “화재 원인이라도 속 시원히 밝혀져야 주민들도 편하게 밤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부경찰은 아직까지 별다른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3건의 화재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미뤄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담뱃불이나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필로폰 공급·투약 3명 구속

순천경찰, 수사 확대

마약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4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순천경찰은 24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박모(43)·호모(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한 이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호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진주의 한 도로변에서 필로폰 0.3g을 이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10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몸에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마약을 공급해주고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마약 구매 경로와 거래량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필로폰이 수시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순천경찰은 지난해 마약 사범 2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법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 손해배상”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

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액의 60%인 51억7000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책임제한비율은 유지한 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18억여원으로 늘려잡아 총 배상액이 70억원에 달하게 됐다. /연합뉴스

나원침 (8276) 김종두



목재상가 화재

광주 동명동 6500만원 피해

24일 새벽 3시15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동구의 특화 거리인 ‘나무전거리’의 한 목재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점포 2동(내부면적 600㎡)과 주차된 차량 4대를 태우고 6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상가 내부에 목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4시께 영업을 마친 뒤 출입문을 잠고고 나왔다”는 목재상 주인의 진술과 “상가 지붕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뒤편 60대 지적장애 남매 성추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남매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성추행을 할 때마다 돈을 준 60대가 경찰서행.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안군 한 마을에 사는 A씨 남매를 성추행한 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매년 5000원을 줬는데, 최근 무안지역 장애인재활센터의 남매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들

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4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26·지적장애 3급)씨와 A씨의 여동생(22·지적장애 2급)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정씨(62·무안군)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안군 한 마을에 사는 A씨 남매를 성추행한 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매년 5000원을 줬는데, 최근 무안지역 장애인재활센터의 남매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숙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구원 합격 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국가, 행정, 행정, 국어, 한문, 회계, 경제, 교육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정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